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의 차이연구

최지수* · 위은하**1)

운암중학교*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생활과학연구소**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desirable character and the creative personality according to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Choi Ji soo* · Wee, EunHah**1)

Unam middle school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any differences can be found in desirable character traits and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Gwangju, South Korea. It was conducted by administering a self-report survey to 544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collected survey data were analyzed by Means, Cronbach's α , Factor analysis, One-way ANOVA, and Duncan-test using the SPSS/PC WIN 19,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total coordination seeking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s very important to teens and is deeply related to desirable character traits and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sirable character traits show positive results for basic living habits, filial piety, respect and affection.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how positive results for curiosity, open thinking, risk taking, assignment completion and esthetic appreciation. Considering these findings, there is a need for supplementary content on total coordination seeking behavior in home economics courses.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desirable character traits and crea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can be expected through after class activities involving clothing habits or searching for a path in life and given the depth of education related to total coordination through a free semester system.

Key words: 외모관리행동(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바른 인성(desirable character), 창의적 인성(creative personality), 청소년(adolescent)

1) 교신저자: Wee, Eun Hah, 77 Yongbong-ro,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82-62-530-2523, Fax: 82-62-530-2529, E-mail: weh@jn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모관리는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과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인간은 외모관리행동에 관심이 많다.

Statics Korea(2010)의 ‘연령별 평균시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연령에서 외모관리행동은 1999년도보다 2004년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또한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청소년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2.9%)’, ‘직업(25.7%)’, ‘외모·건강(16.9%)’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에 비해 ‘공부’와 ‘직업’에 대한 고민은 감소하고 ‘외모·건강’에 대한 고민은 증가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외모관리는 어른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거나 학교생활지도에서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최근 일상이 되어버린 청소년의 화장에 대해서도 기성세대들의 시각을 살펴보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외모관리행동 중 교복 변형 또한 중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규제가 따르는 생활지도 영역이다. Park과 Cho(2007)에 의하면 교복변형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찬성이 13.3%, 반대 86.7%로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들의 교복변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청소년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선행 연구도 있다. 외모관리를 잘 하는 학생들은 교우 관계가 좋았으며(Yoon & Wee, 2010),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2).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어른들의 시선과 긍정적인 연구들의 상반되는 결과가 있으므로 외모관리행동이 학생들의 바른 인성 및 창의적 인성에 어떤 차이를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된다.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과 관련된 변인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과 신체이미지(Kim & Lee, 2001), 신체 만족도(Gho & Kim, 1996; Kim & Kim, 2011; Kim & Hwang, 2008), 자아존중감(Kim, Lee & Gho, 2006), 현대 사회의 성공(Kim, 2008), 학교생활 적응(Yoon &

Wee, 2010) 등 다양한 변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외모관리행동은 중학생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기본생활시간에 포함되는 만큼 인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2009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 Sci. and Tech, 2009)에서 바른 인성 및 창의적 인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외모관리행동과 바른 인성,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외모관리행동의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각 집단들 간의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욕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바람직한 인식과 더 나아가 바른 인성적인 측면, 그리고 창의적 인성의 측면에서 생활지도와 가정 교과의 의생활 영역의 교육에 관련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관리행동

외모(appearance)란 어떤 사람을 볼 때, 첫 번째로 지각하게 되는 부분으로 외모는 타인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상을 제공하게 된다(Lee & Wee, 2013). 외모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신체의 생김새부터 얼굴, 화장, 헤어스타일, 몸매, 의복 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이는 전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외모관리행동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Kaiser, 1997). 다시 말해,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일 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보이기 위해 여러 도구인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외모관리행동이라고 한다(Goffman, 1965).

외모는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이자 경쟁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개인의 욕구와 개성,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Lee, 2012). 외

모 관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성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이며 일상생활을 통해 타인에게 여러 가지 외모관리행동을 보여주게 되며 이러한 외모향상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그 이미지를 내면화시키려고 노력한다(Lim et al, 2000).

외모에 대한 정보가 자신의 인상 형성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가지고 있는 결점을 최대한 커버하여 보다 매력적으로 향상된 외모이미지를 갖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Kim, 2003)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이상적인 신체 모습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복, 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 관리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한다(Kaiser, 1997). 그리고 외모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외모는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진다는 사회, 문화적 관념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점차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Shin & Chun, 2008).

외모관리행동이나 이상적 외모 추구태도는 현재에만 존재하는 특징은 아니었다. 외모는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중요하게 여겨졌고, 이를 가꾸기 위한 행동 또한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여러 사회·문화권에서 통용되던 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려는 외모관리행동은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더욱 급속히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Lee & Wee, 2013).

화장은 인간의 신체를 바탕으로 사회의 문화현상을 반영하며 시대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미적 요소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화장은 자신이 지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개성을 최대한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움의 표현방법이다(Jeon & Yoo, 2011). 그리고 피부 관리는 피부가 지닌 기능을 가능한 완전하게 유지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Kim, 2008). 전영지(2007)는 스포츠조선기사에서 10대 여성들의 화장품 구매율은 2005년 12%, 2006년 20%, 2007년(10월까지) 37%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고, 미(美)에 대한 욕망이 커지는 청소년기의 피부 관리나 화장행동은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속집단에 대한 모방심리 그 이상을 넘는 자아의식의 추구 및 미적 가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Kim,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화장 및 피부 관리 행동은 다양한 방법과 색에 관련된 행동들이 이루어지므로 창의적 인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과도한 화장 및 피부 관리는 학교에서 제약이 따르는 부분이 있으므로 학교의 규율을 따르지 않는 학생의 바른 인성적인 측면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토틸(total)은 ‘전체의’, ‘완전한’이란 뜻으로 토틸코디네이션(total-coordination)은 단순히 의복만이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모자, 액세서리, 구두 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한 스타일링을 말한다(Lee & Shin, 2000). 현대의 복식문화는 다양한 외모 단서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토틸 패션(total fashion)의 경향을 띄고 있고(Ryu & Kim, 2007), 헤어가 의상을 제외한 외모에서 차지하는 이미지는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Suh & Jeong, 2009) 토틸 패션의 헤어스타일은 인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복과 중요한 공통점을 지닌다.

창의적 행동의 습관은 창의적 인성과 관련되므로 토틸코디네이션 추구 행동은 창의적 인성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생활에 포함되는 토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은 식생활, 주생활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적인 필수생활로 인식되고 있다. 기본적인 필수생활시간은 전반적인 인성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토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은 창의적 인성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과의 관련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체형은 여성들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이어트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신체매력에 대한 현대인의 미의식은 날씬함과 관계성이 높다. 날씬함은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성숙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건강이 목적이 아닌 미용상의 이유로 체형 조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Hayes, 1987; Lee, 1997).

자신의 체형과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이상적인 체형을 비교하게 되는 청소년기에는 체중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자신이 좋아하는 또래집단이나 연예인들의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특히 우리 사회에 점차 만연되어가는 ‘지나치게 마른 체형’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신체적 발달을 이루는 청소년기의 ‘신체상(body image)’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Lee & Kim, 2008).

외모가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이상적인 외모를 갖기 위한 노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남녀 구분 없이 외모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Lee, 2004). 청소년기에는 여드름 등으로 인한 피부트러블로 자신의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며(Han & Lee, 2009) 전문숍이나 병원에 다니며 관리하기도 한다.

2. 바른 인성

‘인성’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이 용어의 번역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personality’ 혹은 ‘character’로 사용된다. 전자가 주로 개인의 성격적 특징을 의미하는 개성을 이야기한다면, 후자는 개인의 사람됨이나 인간성, 도덕적 성격(moral persona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인성’의 개념은 가치중립적인 성격(personality)과 가치지향적인 인격(character)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Chang, 2011).

또한 인성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Cho, et al., 2004)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다운 모습 및 품성과 자질(Son & Jeong, 2014)이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연구자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조금씩 상이하다.

인간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 모형 개발 및 평가방안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Huh et al., 1994)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적인 덕목을 4가지 영역인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효도·경애, 공동체 의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본생활 습관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할 습관으로서 규칙적인 생활, 정리 정도, 청결·위생, 물자절약이 있다. 자아확립은 각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확립해 가는 데 요구되는 덕목들로서 정직, 근면, 성실, 자주가 있다. 효도·경애는 우리의 도덕적 전통과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 있는 덕목들이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민주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관련된 덕목으로서 질서, 협동, 준법, 타인 존중, 봉사, 정의감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바른 인성’은 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인격 속에 통합시켜 드러나는 인격 특성이라 보았다. 사람다운 사람,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을 기르려는 교육의 의미가 담긴 ‘바른 인성’을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효도·경애, 공동체 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창의적 인성

현대사회에서 창의성은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연결되므로 창의적 활동은 국가의 번영에도 필요한 요소이다(Yang, 2005). 7차 교육과정(Ministry of Edu., Sci. and Tech, 1997)에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 인성 교육을 핵심적 키워드로 잡고 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구성방침에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사고와 능동적으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기업, 정치 등 전 영역에서 주요한 관심사이다. 이러한 창의성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Amabile(1983)은 3가지 요소로 창의성을 설명하고 있다. 창의성은 인지적인 측면의 창의성, 정의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창의적 인성,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동기의 세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Hayes(1987)에 의하면 창의적인 업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적 수준은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능의 수준에 따라 창의성에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역이론을 설명하였다. 즉 창의적 업적은 단지 높은 창의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정의적 특성을 지녔는지에 따라 창의적 성취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의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창의적 인성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창의적 인성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진 정의적 특성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는 동기, 태도, 가치관, 인지양식 등과 창의적 인물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성을 말한다(Chun, 2005; Feist, 1999). Ha(2000)은 창의적 인성을 창의성 발현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이고 핵심적인 개인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Yang(2005)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지적 모험심과

상상을 즐기며, 새로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가치 있고 자신만의 독창성을 발휘하려는 성향이라고 하였다. Jang과 Cho(2010)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인성적 특성은 호기심이 많고 독특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개방적이고 유머감각이 있으면서도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을 하려는 독립심이 있다. 이와 같이 창의적 인성과 관련된 연구는 창의적인 인물들의 특징이나 창의성과 관련된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외모관리행동과 창의적 인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창의성의 정의적 영역인 창의적 인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창의성과 의생활에 관련된 연구에는 Chung(1998)의 창의성 관점에서의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 내용 분석이 있으며, Lee와 Chung(1999)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복을 변형시켜 입은 집단은 비변형집단보다 창의성과 개성, 의상심미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볼 때 창의성의 정의적 영역인 창의적 인성이 의복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가.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 바른 인성, 창의적 인성의 일반적 인 경향은 어떠한가?
- 나.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따라 바른 인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다.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따라 창의적 인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3개 중학교(북구, 남구, 서구)의 남·여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문항

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4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중학교 3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수정·보완을 거쳐 전공교수 3인과 대학원생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문지 총 600부를 배부하였으며 56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부실 기재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총 54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229명(41.3%), 여학생 356명(58.7%)으로 구성되었다.

3. 측정 도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질문 21문항, 바른 인성에 관한 질문 38문항, 창의적 인성에 관한 질문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Table 1>과 같았다. 외모관리행동의 측정도구를 만들기 위해 Lee(2012), Lee(2007), BaiK(2011), Lee(2002)의 도구를 참조하여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외모관리행동의 각 하위요인을 얻기 위해 본 조사 후 Varimax rotation을 사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을 얻었으며, 1요인은 “나는 메이크업을 매일 하는 편이다”, “미백, 피지 관리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 한다”, “나는 메이크업을 인터넷 동영상이나 강사에게 배워본 적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8문항)이라고 명명하였다. 2요인은 “나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들면 구입하는 편이다”, “나는 주로 잘 알려진 브랜드의 옷을 구입하는 편이다”, “나는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가진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6문항)이라고 명명하였다. 3요인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요가, 배드민턴, 조깅 등)을 한다”, “체중 조절을 위해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체중관리행동(3문항)이라고 명명하였다. 4요인은 “나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메이크업을 전문가에게 받은 적이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 관리실이나 병원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두피관리를 받기 위해 미용실에 간 적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전문습 이용행동(4문항)으

로 명명하였다.

바른 인성의 측정 도구는 Cho(2009)의 바른 인성척도 38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신뢰도 분석 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생활습관(10문항), 자아확립(8문항), 효도·경애(5문항), 공동체의식(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생활습관 요인은 “하루 생활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밖에서 돌아오면 손발을 씻습니다” “식사 후에 이를 닦습니다”, “웃을 단정히 입고 다닙니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76 이었다. 자아확립요인은 “자기가 할 일은 끝까지 합니다”, “TV는 정해진 시간에만 봅니다”, “자기의 잘못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0 이었다. 효도·경애 요인은 “웃어르게 인사를 잘 합니다”, “아랫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67 이었다. 공동체의식 요인은 “공공 시설물을 아껴 씁니다”,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킵니다” 등의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9 이었다.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의적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창의적 인성검사 3종 개발 보고서’(Ha, 2011)중에서 중학생 도구를 사용하였다. 창의적 인성의 각 하위요인을 얻기 위해 본조사 후 Varimax rotation을 사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결과 ‘창의적 인성검사 3종 개발 보고서’와 같은 6개의 요인이 얻어졌으나 본 연구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판단의 독자성과 부분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1요인은 호기심(4문항), 과제집착(5문항), 위험감수(4문항), 심미성(4문항), 사고의 개방성(3문항) 등 5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1요인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 “그것은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호기심이라 명명되었다. 2요인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답지를 보지 않고 끝까지 내가 풀려고 노력한다”, “무엇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집중하는 편이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과제집착으로 명명되었다. 3요인은 “어떤 일(놀이나 과제)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록 실패가 예상될지라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면 하는 편이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위험감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4요인은 “예술 활동(예: 시 짓기 또는 미술작품 만들기, 연극하기, 오케스트라 활동 등)을 즐겨한다”, “예술적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심미성이라 명명하였다. 5요인은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솔직히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사고의 개방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외모관리행동 및 바른 인성, 창의적 인성의 일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desirable character, and creative personality.

Factors	Contents	Cronbach's α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Makeup & Skin care	.89
	Total coordination pursuit	.78
	Weight loss	.86
	Beauty shop & Clinic	.61
Desirable character	Basic life habits	.76
	Establishment of the ego	.80
	Filial piety & respect affection	.67
	Community spirit	.89
Creative personality	Curiosity	.73
	Tenacity for challenge	.76
	Risk-taking	.64
	Aesthetics	.70
	Open mind	.61

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M), 표준편차(SD) 등의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외모관리행동 및 창의적 인성의 측정 도구의 하위요인 도출을 위해 Varimax rotation에 의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창의적 인성의 차이는 요인값을 이용하여, 그리고 바른인성은 평균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외모관리행동, 바른 인성, 창의적 인성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인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 바른인성, 창의적 인성의 일반적인 경향은 <Table 2> 과 같았다.

먼저,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인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은 2.70(.83), 체중관리행동은 2.44(1.20),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은 1.90(.92), 전문숍 이용행동은 1.26(.46)으로 전체적인 외모관리 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이 다른 외모관리행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매일 입어야 하는 의복과 자신을 치장할 수 있는 장신구, 헤어

관리하며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인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위험 부담감이나 비용 부담이 높은 전문숍 이용행동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aik(2011)의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외모관리행동은 의복관리 2.98로 가장 높았고, 신장관리 2.62, 체중관리 2.34, 미용관리 2.26, 전문적 외모관리 1.57순서로 본연구와 비슷하게 의복에 관련된 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체중관리, 미용관리, 전문적 외모관리 순서로 나타났다. Lee & Wee(2013)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은 의복스타일추구행동 2.47,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은 2.38, 헤어관리행동은 2.30, 체중관리행동은 2.28,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은 1.97순서로 본 연구의 조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의복에 관련된 행동을 가장 많이 하며, 성형 및 체형보정행동과 같은 전문숍을 이용하는 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바른 인성의 경향을 살펴보면 하위요인인 효도·경애는 3.46(.63), 기본생활습관은 3.41(.57), 공동체의식은 3.20(.61), 자아확립은 3.16(.64)순서로 효도·경애가 다른 하위요인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며 웃어른을 공경하는 예의범절과 밀접한 효도·경애 요인의 점수가 높았으며 모든 바른 인성 하위요인은 중간 값(3.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는 하위요인인 자아 확립과 관련된 교육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Huh 등(1994)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효도·경애는 3.38, 기본생활습관은 3.37, 공동체의식은 3.33, 자아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desirable character, and creative personality.

Factors	Items	M(S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Makeup & Skin care	1.90(.92)
	Total coordination pursuit	2.70(.83)
	Weight loss	2.44(1.20)
	Beauty shop & Clinic	1.26(.46)
Desirable character	Basic life habits	3.41(.57)
	Establishment of the ego	3.16(.64)
	Filial piety & respect affection	3.46(.63)
	Community spirit	3.20(.61)
Creative personality	Curiosity	3.50(.75)
	Tenacity for challenge	3.07(.71)
	Risk-taking	3.36(.74)
	Aesthetics	2.88(.84)
	Open mind	3.38(.51)

확립은 3.20의 분석결과를 나타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KEDI 인성검사(Hyun, 2014)의 연구결과 인성 하위요인별 5점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나타냈는데 그 결과는 ‘예의(8.25)’, ‘정의(7.82)’, ‘책임(7.71)’, ‘자기존중(7.67)’, ‘시민성(7.63)’, ‘배려·소통(7.50)’, ‘정직·용기(7.40)’, ‘지혜(7.18)’, ‘자기조절(7.10)’, ‘성실(6.6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역시 효도·경애와 관련 깊은 예의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자아 확립과 관련 깊은 자기 조절, 성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중학생의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 중 호기심은 3.50(.75), 사고의 개방성은 3.38(.51), 위험감수는 3.36(.74), 과제집착은 3.07(.71), 심미성은 2.88(.84) 순서로 호기심이 창의적 인성의 하위 요인 중 제일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은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의문과 관심을 가지려는 성향인 호기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창의적 인성의 하위영역 중 심미성을 제외한 모든 값은 중간값(3.0) 보다 높게 나타났다. Kim, C. J. (2011)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인성 하위 요인 중 호기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다. 한국교육개발원 중학생용 창의적 인성검사(Ha, 2011)에서는 위험감수는 3.12(.62), 사고의 개방성은 3.09(.60),

호기심은 3.03(.73), 심미성은 3.05(.65), 과제집착은 3.01(.61)으로 위험감수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이 심미성을 제외한 모든 창의적인성의 하위영역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중학생용 창의적 인성검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은 예술적 활동을 좋아하고, 감수성이 뛰어나고 관련된 심미성이 다소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때 예술적 활동과 예술적 안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미성은 예술을 통해 가장 잘 훈련되고 지각적 훈련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표현으로 완성되는 예술의 정서적인 힘, 즉 미적 체험을 통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Kim, Y. H., 2011).

2.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의 차이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의 정도에 따라 바른 인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세 집단으로 나눈 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Table 3. The differences of desirable characters according to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Desirable character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Basic life habits	Establishment of the ego	Filial piety & respectt affection	Community spirit
		M(SD)	M(SD)	M(SD)	M(SD)
Makeup & Skin care	high	3.40(.57) ^B	3.05(.54) ^B	3.45(.58)	3.13(.54) ^B
	middle	3.57(.54) ^A	3.29(.63) ^A	3.53(.61)	3.34(.60) ^A
	low	3.32(.62) ^B	3.15(.71) ^B	3.41(.66)	3.16(.66) ^B
	F	8.298 ^{**}	5.514 [*]	1.521	5.561 [*]
Total coordination pursuit	high	3.49(.57) ^A	3.18(.64)	3.56(.57) ^A	3.24(.64)
	middle	3.44(.48) ^A	3.15(.57)	3.45(.57) ^{AB}	3.19(.56)
	low	3.28(.67) ^B	3.13(.74)	3.34(.74) ^B	3.17(.66)
	F	6.636 [*]	.254	4.915 [*]	.604
Weight loss	high	3.45(.50)	3.12(.53)	3.49(.56)	3.20(.52)
	middle	3.45(.56)	3.20(.61)	3.44(.59)	3.19(.60)
	low	3.36(.63)	3.16(.75)	3.45(.71)	3.20(.70)
	F	1.534	.631	.312	.053
Going to beauty shop & Clinic	high	3.39(.51)	3.12(.60)	3.42(.58)	3.19(.56)
	middle	3.53(.43)	3.24(.51)	3.53(.49)	3.27(.50)
	low	3.41(.61)	3.16(.68)	3.46(.66)	3.19(.65)
	F	1.163	.640	.540	.318

* p<.05 **p<.01, A, AB, B: Duncan grouping
low<M-½SD, M-½SD<middle<M+½SD, M+½SD<high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p < .01$),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p < .05$)의 수준에 따라 기본생활습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화장과 피부 관리 행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거나 무시하는 ‘상’과 ‘하’ 집단보다 적절히 하는 ‘중’ 집단의 경우 기본생활습관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 화장품에 지나친 관심을 갖거나 관심이 없는 중학생들보다 적절히 관심을 갖는 중학생들은 기본생활습관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서 밖에서 돌아오면 손발을 씻기, 식사 후에 이를 닦기, 옷을 단정히 입고 다니기, 속옷을 자주 갈아입기 등을 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많이 하거나 적절히 하는 ‘상’과 ‘중’ 집단 즉, 유행하는 의복과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갖는 중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중학생보다 기본생활습관을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ho(2009)의 연구에서도 기본생활의 행동지침 중 ‘외출 전에 이쪽저쪽 거울을 보기’와 같은 지침은 외모관리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과 토털코디네이션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동이며 중학생의 높은 외모관리행동을 보이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관련시킨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학생의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의 수준에 따라 자아확립은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즉, 화장 및 피부 관리 행동을 적절히 하는 ‘중’ 집단은 지나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상’과 ‘하’ 집단보다 자아확립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 및 피부관리를 적절히 하는 집단은 학생으로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내며, 작은 일이라도 남을 속이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Hwang과 Cheon(2011)의 연구에서 중학생들에게 유행이자 일상소재로 대중화된 화장 행위를 수용하지 못하는 집단을 ‘모범생’, 기성세대의 시각에 위배되는 진한 화장을 하는 집단을 ‘날라리’, 그리고 이들과 구별되는 ‘중간 집단’으로 분류 하였다. 이 중에서 ‘중간 집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화장을 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기성세대의 시각 또는 규칙에 완전히 저항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규제로서 적당히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중’ 집단에 해당하는 학생들 또한 자신들의 욕구와 행위를 조절하여 자아확립이 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의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에 따라 효도·경애는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즉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하는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효도·경애를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잘하는 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윗사람에게 인사를 잘하고 아랫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예의바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ee(2007)는 19세기 서양 시대의 여성들은 ‘예의바른’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의복에 신경을 썼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위해 유행하는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고려하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효도·경애의 행동을 실천하는 외모관리행동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은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p < .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화장과 피부관리 행동을 하는 ‘중’ 집단이 ‘상’과 ‘하’ 집단보다 공동체의식을 더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과 Cheon(2011)의 연구에서 중학생은 진한 화장을 하는 집단과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지 않아 자기관리에 소홀하고 여성답지 못하다는 집단과는 구별되는 적당한 외모관리를 하는 ‘학생다운’ 집단으로 구별 짓고 있다. 본 연구의 ‘중’에 해당하는 집단이 ‘학생다운’ 적당한 외모관리를 하는 집단으로 판단된다. 학생다운 적당한 외모를 관리하는 중학생은 공공 시설물을 아껴 쓰며 정해진 규칙이나 약속을 더 잘 지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였다.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행동과 전문습이용행동에 따른 바른인성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창의적 인성의 차이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의 정도에 따라 창의적 인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세 집단으로 나눈 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 체중관리행동, 전문습 이용행동 차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중학생들의 화장 및 피부관리 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p < .001$)가 나타났으며 ‘상’과 ‘중’ 집단이 ‘하’ 집단보다 심미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에 따라 호기심($p < .01$), 과제집착

Table 4. The differences of creative personality according to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Creative personality		Curiosity	Tenacity for challenge	Risk-taking	Aesthetics	Open mi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M(SD)	M(SD)	M(SD)	M(SD)	M(SD)
Makeup & Skin care	high	3.52(.67)	3.01(.65)	3.37(.71)	2.95(.81) ^A	3.40(.48)
	middle	3.58(.66)	3.14(.69)	3.35(.70)	3.07(.81) ^A	3.33(.56)
	low	3.45(.85)	3.07(.76)	3.36(.78)	2.70(.84) ^B	3.34(.53)
	F	1.880	1.289	.061	10.142 ^{***}	1.310
Total coordination pursuit	high	3.64(.67) ^A	3.17(.69) ^A	3.48(.73) ^A	3.08(.85) ^A	3.43(.68) ^A
	middle	3.49(.72) ^B	3.04(.63) ^{AB}	3.34(.71) ^{AB}	2.80(.78) ^B	3.39(.49) ^{AB}
	low	3.37(.85) ^B	3.00(.82) ^B	3.23(.77) ^B	2.75(.88) ^B	3.16(.59) ^B
	F	5.789 ^{**}	2.893 [*]	4.919 ^{**}	8.142 ^{***}	2.729 [*]
Weight loss	high	3.56(.75)	3.10(.69)	3.45(.72) ^A	3.06(.85) ^A	3.38(.49)
	middle	3.49(.72)	3.05(.69)	3.27(.69) ^B	2.86(.77) ^B	3.42(.54)
	low	3.47(.71)	3.07(.75)	3.34(.79) ^{AB}	2.73(.85) ^B	3.37(.55)
	F	.710	.264	2.60 [†]	7.855 ^{***}	.125
Going to beauty shop & Clinic	high	3.50(.68)	3.10(.68)	3.36(.71)	3.09(.79) ^A	3.40(.47)
	middle	3.50(.54)	3.00(.47)	3.38(.59)	2.98(.67) ^{AB}	3.45(.43)
	low	3.51(.80)	3.07(.75)	3.35(.77)	2.78(.86) ^B	3.36(.53)
	F	.016	.411	.027	7.925 ^{***}	.761

* p<.05 ** p<.01 ***p<.001, A, AB, B: Duncan grouping
 low<M-½SD, M-½SD<middle<M+½SD, M+½SD<high

(p<.05), 위험감수(p<.01), 심미성(p<.001), 사고의 개방성(p<.01)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하는 ‘상’집단이 ‘중’과 ‘하’집단보다 호기심과 과제집착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은 신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의복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자신의 겉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큰 부분이므로 항상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Kim & Park, 2009). 여러 가지 패션 스타일을 매칭 시켜 봄으로써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또는 ‘이렇게 스타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에 관련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므로 브랜드 의복에 관심이 높고 헤어와 패션 유행에 관한 관심은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과제집착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이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과제집착 점수가 더 높았다. 유행에 관심을 갖고 잘 알려진 브랜드의 옷과 액세서리 등을 구입하여 입고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는 중학생들은 창의적 성취를 이루겠다는 강한 성취 욕구를 갖는 태도로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하고 몰두함’,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의 모습을 보여준다.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과 체중관리행동은 ‘상’집단이 ‘중’과 ‘하’집단보다 심미성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하는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위험감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에 관심이

많고 알려진 브랜드의 옷을 구입하고 헤어에 신경 쓰는 집단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면 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많이 하는 ‘상’집단의 경우 ‘하’집단보다 사고의 개방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인경과 김미숙(2004)의 연구에서 독립적 외향성 성격의 정의를 살펴보면 ‘혼자서도 일을 잘하며, 실질적, 현실적이다.’ ‘급진적이고 변화를 좋아하며 제안을 잘한다.’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 정의한다. 이 성격은 창의적 인성 중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이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한계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생각하거나 행동함’과 관련된 새로운 경험이나 생각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성향인 사고의 개방성과 매우 가깝다. 독립적 외향성 성격은 토털코디네이션 정도가 다른 성격 유형에 비하여 높아 코디네이션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Yeom & Kim, 2004). 그러므로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이 사고의 개방성 점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상대적으로 유행에 민감하고 알려진 브랜드의 옷을 구입하는 집단의 경우 내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거나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중관리행동(p<.05)에 따라 위험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그리고 체중관리행동을 하는 ‘상’집단이 ‘중’집단보다 위

험감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리행동은 체중 조절을 위해 식사를 거르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이는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시도하며, 더 나아가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상에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안전하고 익숙한 생활보다는 위험스러운 일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는 위험감수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전문습 이용행동은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심미성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외모관리행동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심미성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Kim, Y. H. (2011)는 창의성이 높을수록 의상심미성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창의적 인물의 특성인 심미적 감각이 의복행동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Creekmore(1963)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4개의 의복행동 변인 중 심미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외모를 중요시 하여 아름답게 입으려 했다고 하였다. Chung과 Shin(2004)은 외모관심도가 높은 고등학생 집단은 신체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의복에서 심미성, 유행성, 유명상표를 추구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외모관리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학생의 경우 심미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학교나 가정에서 생활지도시 중학생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외모관리행동은 가정교과 의생활 영역에 관련하여 지도계획을 세울 때 중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 향상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한 중학교 3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54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PC 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는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 바른 인성은 효도·경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의적 인성에 있어서는 호기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이 높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과 장신구, 헤어를 관리하며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교과 의생활 단원에서 토털코디네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거나 장신구와 헤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다양한 자료로 풍부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바른 인성의 자아 확립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은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를 보내고 있으므로 자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창의적 인성은 심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심미성이 낮다는 것은 예술적인 경험 부족과 미적감수성이 떨어짐을 의미하므로 심미성 향상을 위해 예술적인 경험을 제공해주고 감수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심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과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의 ‘중’ 집단이 ‘상’과 ‘하’ 집단보다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공동체의식이 높았으며, 토털코디네이션은 ‘상’ 집단일 때가 ‘하’ 집단보다 기본생활습관, 효도·경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리행동과 전문습이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외모관리행동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무시하는 것보다 적절히 조절하여 행하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는, ‘상’, ‘하’ 집단의 기본생활습관과, 자아확립, 공동체의식이 낮았으므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면 낮은 바른 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이 높은 학생들은 기본생활습관과 효도·경애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의복뿐만 아니라 헤어나 장신구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기본생활습관이 잘 갖추어져 있고 어른들에게 예의바르

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과 관련된 교육은 기본생활습관과 효도·경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창의적 인성의 차이는 하위요인 중 심미성이 모든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영역인 화장 및 피부관리행동, 토털패션 추구행동, 체중관리행동, 전문숍 이용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관리행동이 ‘상’인 집단인 경우 ‘하’집단보다 심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인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의 경우 모든 창의적 인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이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호기심, 과제집착, 심미성, 위험감수, 사고의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외모관리행동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유행에 관심을 가지며 헤어스타일부터 의복까지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은 창의적 인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외모관리행동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으며 더욱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심미성과 관련된 진로를 추천해주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은 창의적 인성을 두루 함양할 수 있는 분야임을 고려하여 토털코디네이션과 관련된 교육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외모관리행동 중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은 중학생의 관심도가 높고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과 관련이 깊었다. 바른 인성에서는 기본생활습관과 효도·경애, 창의적 인성에서는 호기심, 사고의 개방성, 위험감수, 과제집착, 심미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 교과 교육과정에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의생활 영역과 관련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마련하여 토털코디네이션과 관련된 심층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Amabile, T. M. (1983).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A componential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357-376.
- BaiK, S. J. (2011). *A Study on Variables of Adolescent'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Chang, S. H. (2011). A Study on Methods for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 *Philosophy of Education*, 43(1), 193-222.
- Cho, E. M. (2009). *A study about building personality through the practice-directed program of personality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Korea.
- Cho, N. S., Mun, Y. R., Lee, M. J., Kim, H. S., & Kim, H. J. (2004). *A Basic Study on the evaluation of personality scale development*.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Chun, G. W. (2005). *Creology*. Seoul: publish by Hakmunsa.
- Chung, J. Y. & Shin, H. W. (2006).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clothing benefits sought according to body cathexis and appearance interest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8(4), 13-23.
- Chung, M. G. (1998). Analysis of Home Economics Textbooks for Middle School in a viewpoint of the Creativity - Focus on the learning Unit of Making Necessar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0(1), 171-183.
- Creekmore, A. M. (1963).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s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Feist, G. J. (1999).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on artistic and scientific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 *Handbook of creativity*, 273-2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ho, A. R. & Kim, Y. J. (1996). The Effects of Egocentrism, Self - Consciousness, Body Cathexis on Adolescence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0(4), 667-681.

- Goffman, H. (1965). Identity kits in M. E Roach & J. B Eicher (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Ha, J. H. (2000). The development of Creative Personality Scale. *Journal of th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14(2), 187-210.
- Ha, J. H. (2011). (KEDI) *3 species of creative personality test development report*.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1-96.
- Han, D. J. & Lee, J. S. (2009). Analysis of adolescent behavior to skin care & make-up movement to self-esteem.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ke-up Design*, 5(2), 193-202.
- Hayes et al (1987). *Cognitive processes in revi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h, G. C., Cho, N. S., Kim, Y. B., Yoo, G. S. & Lee, S. H. (1994).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chool education model study on the school education model for Humanity(CR94-01)*.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Hwang, H. M. & Cheon, H. J. (2011). The makeup experience of middle school girls. *Midea, Gender & Culture*, 19, 179-211.
- Hyun, J. (2014). *A study on promoting efficiency of field study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 personality level survey and inspection tools*.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Jang, Y. S. & Cho, J. H. (2010). The Effects of Parents' Creative Personality and Creative Home Environment on Young Children's Creative Personalit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16(2), 309-336.
- Jeon, J. H. & Yoo, T. S. (2011). Directional Relationships of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Image Management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11), 1333-1345.
-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2nd ed.)*. New york: Macmillan.
- Kim, A. N. A., Lee, S. G. & Goh, A. R. (2006). Transactions : effects of media involvemen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preteen boys and gir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0(11), 1538- 1549.
- Kim, C. J. (2011).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Variables on High School Students' Creativit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9(4), 97-108.
- Kim, J. A. & Kim, Y. S. (2011). A study on the Body Cathexi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4(1), 55-73.
- Kim, J. S. & Lee, M. S. (2001). The effect of TV media on adolescent' body im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5), 957-968.
- Kim, M. J. (2008). *The Research of Various Influences on Externals as Increasing People's Interest in Our Modern Society by Surveying Partially Live in Busan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S. (2012). *The Influence of Well-being Perception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Senior Wom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ju Korea.
- Kim, S. H. (2003). Focused on Females in Their Twenties =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5), 99-108.
- Kim, Y. & Hwang, S. J. (2008). Effects of socio-cultural pressure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n the behavior of women for appearanc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10), 112-122.
- Kim, Y. H. (2011). Qualitative Thought and Creativity: The New Ideas for Arts Educatio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Science of Art*, 33(1), 309-343.
- Kim, Y. S. & Park, J. Y. (2009). The Analysis on Appearance Management of Male College Students: Focused on Management of Hair, Skin, Cosmetic Surgery, Fashion and Body Shap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8(1), 259-273.

- Lee, G. S. (2007). A Research of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in Adult Women and Degree of Appearance Concern. *Journal of the Korean Beauty Art Society*, 1(2), 109-117.
- Lee, J. H. (2007). *Bourgeois society and fashion*. Seoul: Real cultural studies.
- Lee, J. Y. & Wee, E. H. (2013). A study on the self-concept and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5(3), 19-38.
- Lee, J. Y. (2012). A study on women'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related to self-esteem and information sear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W. & Kim, B. R. (2008). A Study on Weight Control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Behavior by Weight Control Attempt of High School Female Students in Wonju Are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0(4), 91-105.
- Lee, M. (1997). *Relationship of body image,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esteem among Korean female collage students*. Ohio State University Master's Thesis.
- Lee, M. H. (2002). Study on women's cosmetic behaviors : focused make-up and cosmetic surge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Wonju Korea.
- Lee, S. K. & Chung, J. G. (1999). The Effect of Abolition of School Uniform on Persona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3(3), 471-482.
- Lee, S. O. & Shin, J. H. (2000). Fashion Trend for Total Coordin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6(1), 113-147.
- Lee, S. W. (2004).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Public-Private Self 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im, S. J., Lee, M. H., Lee, S. H. & Shin, H. J. (2000). *Body images :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by Cash, Thomas F, Pruzinsky, Thomas, Pruzinsky, Thomas. Seoul: Gyomunsa.
- Ministry of Edu., Sci. and Tech. (2009). *2009 Curriculum revision*. Notification 2009-41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997). *The 7th curriculum*. Notification 1997-15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 Park, H. E. & Cho, H. J. (2007). The Analysis of Students' Attitude toward Uniform Transformation of Female Highschool Students. *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9(2), 103-114.
- Ryu, J. W. & Kim, J. S. (2007). Research Papper : The Interaction Effect of Male Clothing Formality Level, Make-up and Hair Style on the Impressions and Liken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3(3), 1330-1334.
- Shin, H. O. & Chun, H. J. (2008). The Effect of Body Satisfaction, Appearance Interests, and Appearance Complex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mo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4(2), 1-17.
- Son, K. W. & Jeong, C. W. (2014). A Study on the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Character and Its Implications for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Ethics Education*, 33(0), 27-52.
- Statics Korea(2010). The average time according to Ages, reviewed 2010.04.09. from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 Suh, G. H. & Jeong, G. S. (2009). Relationship between Women's Attitude of Hair Dressing and their Personality: An Explorative Study.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y*, 14(4), 711-729.
- Yang, J. H.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odrama program for school life adjustment and creative personality and it's effe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Yeom, I. K., & Kim, M. S. (2004). Study of total coordination as determined by personality and appearance-related characteristics.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12(6), 1045-1059.
- Yoon, S. I. & Wee, E. H.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in school adjustment for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2(2), 1-13.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 측면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한 중학교 3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고 54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PC 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외모관리행동 중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은 중학생의 관심도가 높고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과 관련이 깊었다. 바른 인성에서는 기본생활습관과 효도·경애, 창의적 인성에서는 호기심, 사고의 개방성, 위험감수, 과제집착, 심미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 교과 교육과정에 토털코디네이션 추구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의생활 영역과 관련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마련하여 토털코디네이션과 관련된 심층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

■ 논문접수일자: 2015년 08월 17일, 논문심사일자: 2015년 08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09월 29일